



정교회주보

제2541호

2025년 9월 7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십자가 현양 축일 전 주일

성 소존 순교자

(제4조 • 조과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186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186
- 사도경 : 갈라디아 6,11~18 190
- 복음경 : 요한 3,13~17 19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 (갈라디아 6,18)

사진 설명

안디도로

안디도로(사진)는 성찬예배에서 성찬(성체성혈)을 영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받은 빵으로, '성찬을 대신하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교회 공동체와의 일치를 상징하며, 하느님의 축복과 위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안디도로는 성찬예배의 성체성혈 성사를 위해 준비한 봉헌빵에서 성반에 놓이는 '하느님의 어린양' 등(주보 2517호 1면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만든다.

안디도로는 성찬은 아니지만 봉헌물의 일부로서 그 자체로 거룩한 의미를 지닌다. 성찬예배에 온전히 참여했으나 여러 이유로 성찬을 영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빵에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안디도로를 받을 때는 경건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바닥에 부스러기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부자 청년과 우리에게 주신 희망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예 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직장과 넉넉한 삶을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사회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재물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때 하느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그 청년을 향한 하늘나라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재물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

경은 단지 그가 슬픔을 안고 떠났다고만 기록합니다. 교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 떠났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비록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느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시작이 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회개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찬예배는 천국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2)

에밀리아노스 원로(1934-2019, 아토스 성산 시모노페트라 수도원장)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 곧 끝없이 깊은 바다, 높고 높은 하늘, 셀 수도 없이 많은 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든 것은 지구의 빈민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오래된 집을 허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어느 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적인 하늘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을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하지만 창문은 무엇입니까? 창문을 어떻게 열 것입니까? 보다시피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로 향한 창문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성찬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이토록 영적인 것으로 향하려고 하니,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

로 돌려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청합시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을 받아 성찬예배 동안에 행해지고, 말해지고,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고, 믿고,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합시다.

당신은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무더위 속에, 또는 아주 추운 날에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게 해서 안 됩니다. 따라서 성령께 간청하여서 어떤 단 하나의 생각도 당신 안에서 이해되지 못한 채 남아있지 않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안에 드리워져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간 예배 안내

* 9월 8일(월)

성모 탄생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알림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소식

현재 그리스를 방문 중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지난 8월 28일 아토스 성산의 이비론 수도원에서 성모 안식 축일 철야 예배(15시간 지속)에 참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드렸고, 수도자들도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인사와 기원을 전했습니다. 대주교는 이비론 외에도 그리고리우, 디오니시우, 시모노페트라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의 여러 도시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활동

10월 3일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이하여, 서울 성당의 장년회와 청년회(신데즈모스)에서는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청소와 제초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참여하실 분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성당 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 날짜: 9월 19일(금)-21일(일: 이른 아침 서울로 출발)
- 숙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영성의 샘터

영적 열매

어떤 사부가 스승 중 한 분을 방문했다. 스승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약간의 콩을 구웠다.

해가 지고 식탁에 앉기 전에 스승이 손님 사부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사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도는 시작되었다.

한 명은 외우고 있는 모든 시편을 낭송했고, 또 다른 한 명도 외우고 있던 두 편의 위대한 예언서를 낭송했다.

그렇게 둘 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잊은 채 날이 새도록 기도했고, 손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났다.

